

2023년 3분기 충청권 지역경제동향 요약

[지역통계과, 2023. 11. 20.]

- (광공업생산) 전기장비, 전자 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등의 부진으로 전년동분기대비 5.7% 감소
 - 대전(-7.3%)은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등의 부진, 세종(-4.3%), 충남(-4.5%)은 전자 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등의 부진, 충북(-7.4%)은 전기장비 등의 부진으로 감소
- (건설수주) 건축 부문, 토목 부문의 부진으로 전년동분기대비 48.7% 감소
 - 대전(-29.3%)은 건축 부문의 부진, 세종(-83.2%), 충북(-49.2%), 충남(-51.6%)은 건축 부문, 토목 부문의 부진으로 감소
- (수출) 메모리 반도체, 컴퓨터 주변기기 등이 줄어 전년동분기대비 25.5% 감소
 - 대전(-17.3%)은 수송 기타장비 등이 줄어, 세종(-23.2%)은 인쇄회로 등이 줄어, 충북(-20.9%)은 축전기와 전지 등이 줄어, 충남(-27.3%)은 메모리 반도체 등이 줄어 감소
- (수입) 원유, 석탄 등이 줄어 전년동분기대비 34.6% 감소
 - 대전(-0.1%)은 기타 집적회로 반도체 및 부품 등이 줄어, 세종(-19.5%)은 쌀 등이 줄어, 충북(-33.4%)은 기타 무기화합물 등이 줄어, 충남(-38.1%)은 원유 등이 줄어 감소
- (고용) 충청권 고용률은 전년동분기대비 0.1%p 상승
 - 세종(0.6%p), 충북(0.5%p)은 상승, 대전(-0.3%p), 충남(-0.1%p)은 하락
- (실업) 충청권 실업률은 전년동분기대비 0.2%p 상승
 - 대전(0.5%p), 세종(0.1%p), 충남(0.3%p)은 상승, 충북(-0.3%p)은 하락
- (인구이동) 전입자 수가 전출자 수보다 많아 3,934명 순유입
 - 대전(-294명), 세종(-429명)은 순유출, 충북(1,507명), 충남(3,150명)은 순유입

2023년 3분기 시도별 지역경제동향 요약

[지역통계과, 2023. 11. 20.]

대전

- 전년동분기대비 소비자물가(3.1%), 서비스업생산(2.6%), 소매판매(20%)는 증가한 반면, 건설수주(-29.3%), 수출(-17.3%), 광공업생산(-7.3%), 수입(-0.1%)은 감소
 - 소비자물가는 주택, 수도, 전기 및 연료 등의 가격 상승, 서비스업생산은 부동산업 등의 호조, 소매판매는 전문소매점 등의 호조로 증가
 - 건설수주는 건축 부분의 부진, 수출은 수송 기타장비 등이 줄어, 광공업생산은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등의 부진, 수입은 기타 집적회로 반도체 및 부품 등이 줄어 감소
- 취업자 수는 사업·개인·공공서비스 및 기타 등의 고용 증가로 전년동분기 대비 1백명 증가, 실업자 수는 전 연령층에서 실업자 증가로 3천 7백명 증가
 - 고용률은 전년동분기대비 -0.3%p 하락, 실업률은 0.5%p 상승
- 인구는 20대, 70대 등의 순유입에도 불구하고, 60대, 30대 등에서 순유출이 많이 나타나 294명 순유출

세종

- 전년동분기대비 소비자물가(2.5%), 소매판매(1.3%), 서비스업생산(0.2%)은 증가한 반면, 건설수주(-83.2%), 수출(-23.2%), 수입(-19.5%), 광공업생산(-4.3%)은 감소
 - 소비자물가는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등의 가격 상승, 소매판매는 대형마트 등의 호조, 서비스업생산은 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의 호조로 증가
 - 건설수주는 건축 부문, 토목 부분의 부진, 수출은 인쇄회로 등이 줄어, 수입은 쌀 등이 줄어, 광공업생산은 전자 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등의 부진으로 감소
- 취업자 수는 사업·개인·공공서비스 및 기타 등의 고용 증가로 전년동분기대비 9천 5백명 증가, 실업자 수는 15~29세, 30~59세에서 실업자 증가로 3백명 증가
 - 고용률(0.6%p), 실업률(0.1%p) 모두 전년동분기대비 상승
- 인구는 2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순유출이 나타나 429명 순유출

충북

- 전년동분기대비 소비자물가(2.9%), 소매판매(1.0%), 서비스업생산(0.3%)은 증가한 반면, 건설수주(-49.2%), 수입(-33.4%), 수출(-20.9%), 광공업생산(-7.4%)은 감소
 - 소비자물가는 주택, 수도, 전기 및 연료 등의 가격 상승, 소매판매는 전문소매점 등의 호조, 서비스업생산은 부동산업 등의 호조로 증가
 - 건설수주는 건축 부문, 토목 부문의 부진, 수입은 기타 무기화합물 등이 줄어, 수출은 축전기와 전지 등이 줄어, 광공업생산은 전기장비 등의 부진으로 감소
- 취업자 수는 농업, 임업 및 어업 등의 고용 증가로 전년동분기대비 1만 2천 5백명 증가, 실업자 수는 30~59세, 15~29세에서 실업자 감소로 3천 2백명 감소
 - 고용률은 전년동분기대비 0.5%p 상승, 실업률은 -0.3%p 하락
- 인구는 20대, 10대 등의 순유출에도 불구하고, 30대, 50대 등에서 순유입이 많이 나타나 1,507명 순유입

충남

- 전년동분기대비 소비자물가(2.6%)는 증가한 반면, 건설수주(-51.6%), 수입(-38.1%), 수출(-27.3%), 광공업생산(-4.5%), 소매판매(-2.9%)는 감소, 서비스업생산(0.0%)은 전년동분기와 동일
 - 소비자물가는 주택, 수도, 전기 및 연료 등의 가격 상승으로 증가
 - 건설수주는 건축 부문, 토목 부문의 부진, 수입은 원유 등이 줄어, 수출은 메모리 반도체 등이 줄어, 광공업생산은 전자 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등의 부진, 소매판매는 슈퍼마켓·잡화점 및 편의점 등의 부진으로 감소
- 취업자 수는 광제조업 등의 고용 증가로 전년동분기대비 1만 1천명 증가, 실업자 수는 15~29세에서 실업자 증가로 5천명 증가
 - 고용률은 전년동분기대비 -0.1%p 하락, 실업률은 0.3%p 상승
- 인구는 20대, 80세 이상 등의 순유출에도 불구하고, 60대, 50대 등에서 순유입이 많이 나타나 3,150명 순유입